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URNING

가제 : 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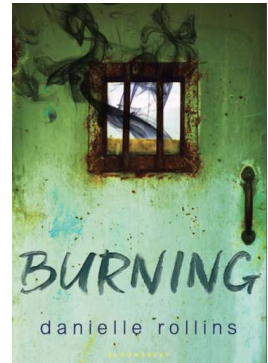
저자 : Danielle Rollins

출판사: Bloomsbury USA Childrens

발행일: 2016년 4월 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과 격리된 소녀들, 교도소에 등장한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소녀들을 사회에서 격리해놓은 교정 시설 브루스필드 교도소. 앤젤라 데이비스도 3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앤젤라의 운명을 바꾸었고 결국 그녀는 이 갑갑한 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도 이제 몇 주만 참으면 철창 신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감옥 동료가 들어오면서, 앤젤라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자유의 그 날은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새로운 소녀가 브루스필드에 첫 발을 내딛던 그 날, 앤젤라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교도소 마당에 나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평소에 새 입소자가 들어올 때보다 더 많은 보안 직원들이 정문에 나와 있었는데, 입소자를 태운 버스가 도착도 하기 전부터 그렇게 미리 나와서 기다리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앤젤라와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교도소와 세상을 나눈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버스가 한 대 들어섰다. 앤젤라는 옆에 앉은 이지처럼 덩치 크고 온 몸에 문신이 가득한 무시무시한 외모의 소녀가 나올 거라 추측하며 숨 죽이고 그 쪽을 응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조그마한 키, 갸름한 몸에 혈렁하게 걸친 오렌지 색 죄수 복, 가느다란 발목에 비해 너무 굵고 무거워 보이는 쇠고랑, 그리고 작은 얼굴 대부분을 차지한 커다란 눈. 언뜻 보면 일곱 살짜리 꼬마 같았지만, 브루스필드에 들어오는 소녀들은 모두 열 살에서 열여덟 살 사이이니 최소 열 살로 봐야 했다. 하지만 거대한 버스 계단을 쇠고랑 걸린 다리로 선뜻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키가 작고 다리도 아직 너무 짧은 소녀였다. 앤젤라는 비슷한 나이인 남동생 찰리를 마지막으로 봤던 날을 떠올리며, 왠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분명 무언가 이상했다. 그 소녀를 맞이하러 나간 경관들이 하나 같이 허리춤에 총까지 차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믿기 힘들지만 그 조그마한 소녀가 누구보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였다.

신기한 능력 혹은 저주를 타고 난 열 살 소녀, 위험천만한 불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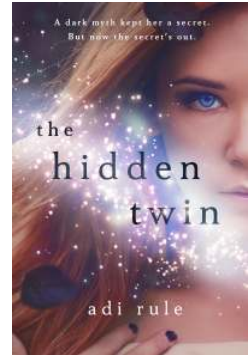
제시카라는 이름의 새 입소자가 온 뒤부터 브룬스필드에는 이상한 사고들이 터진다. 간수와 경관들이 제시카를 대하는 험악한 태도와 분위기, 최고 수준의 보안 절차까지 적용되는 걸 보면 중범죄자임에 틀림 없지만,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섬뜩한 일들이 벌어진다. 감방을 돌아다니던 쥐가 숯덩이가 되어 발견되는가 하면 감방 옷장에 시체까지 등장한다. 불길한 일들이 이어지고, 원인을 찾아나선 앤젤라와 친구들은 모든 정황상 끔찍한 그 일들이 그 어린 새 입소자 밖에는 저지를 사람이 없다는 믿기 힘든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제시카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재능 혹은 저주를 받은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생각만으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것이다.

출소가 코 앞에 다가온 앤젤라는 자유는커녕 교도소에서 영원히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어떻게든 제시카가 있는 이곳에서 달아나야 한다. 하지만 꿈쩍없이 갇힌 감방에서 어떻게 달아날 수 있을까? 위험이 다가오는 속도는 피부로 느껴질 만큼 빨라지고, 이제 브룬스필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로 크게 실망하고 외면한지 오래인 가족들이며 친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앤젤라와 친구들은 알아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소녀들 앞에, 제시카를 둘러싼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다니엘 롤린스(Danielle Rollins)는 다니엘 베가(Danielle Vega)라는 필명으로 2014년 소설 『The Merciless』을 발표했고 그 밖에 다른 필명으로 『Zip』, 『Snap』 등을 썼다. 2009년에는 단편 『Drive』로 ‘푸시카트 상’ 수상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HIDDEN TWIN
가제 : 숨겨진 쌍둥이
저자 : Adi Rule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16년 3월 2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 겨우 살아남아 다락방에 몰래 숨어 살며 세상을 동경하는 소녀

거대한 화산 ‘몰’이 한가운데에 자리한 도시에, 이름 없는 소녀가 좁은 다락방에 숨어서 살고 있다. 소녀와 같은 날 쌍둥이로 태어난 제이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이 소녀는 그럴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도 아빠에겐 딸이 하나 밖에 없는 줄로만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감혀 지내야만 하는 소녀는 아빠의 말처럼 착하고 바르게 자랐지만, 힘들게 끄끙 감춘 그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두 소녀의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불리는 요정 세계의 사람이었다. 빛의 공주로 불리는 그 ‘다른 존재’가 인간인 아빠와 만나 몰래 낳은 아이가 제이와 이름 없는 소녀였다. 원래 ‘다른 존재’와 인간이 자손을 낳으면 무조건 쌍둥이가 태어나고, 한 명은 사람, 한 명은 악마로 태어날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다. ‘붉은 날개’로 상징되는 악마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익사시켜 숨을 끊어놓아야 한다. 그런데 제이와 소녀가 태어난 날, 엄마와 아빠는 그 끔찍한 운명이 자신들에게만은 비켜갔다고 확신했다. 둘 다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스럽기만 할 뿐 악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기뻐하며 전통에 따라 마을 신부님을 불러 갓 태어난 두 딸의 이마에 신성한 표식을 남기는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부님이 작은 면도날로 소녀의 이마를 살짝 긁는 순간, 나와서는 안 되는 피가 흘러나오고 말았다. 칼로 베인 상처와 꼭 닫힌 아기의 눈에서 시커먼 피가 솟구쳤다. 아기는 울음을 터트리고, 신부님이 깜짝 놀라 숨이 턱 막힌 순간 악마를 낳은 엄마는 전설 그대로, 뺑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덩이 불이 되어버렸고, 눈깜짝할 사이에 신부님과 온 집안을 단숨에 태워버렸다. 그렇게 아빠와 제이, 소녀만 세상에 덜렁 남고 말았다. 아빠는 소녀의 실체를 알고도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 평범한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빠는 제이를 가슴팍에 안고 소녀는 다른 집기들과 함께 식탁보에 끄끙 싸서 바구니 속에 숨긴 채 새로운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소녀는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다락방에 숨겨두고 키웠다. 18년을 그렇게 숨어서 살아 온 소녀는 묘한 빛으로 빛나는 눈만 빼면 자신과 꼭 닮은 제이가 자유로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지만 그래도 들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음에 감사하면서 죽은 듯 지냈다.

사라진 쌍둥이 동생, 거대한 화산폭발로 도시를 파괴하려는 자들,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려는 소녀

어느 날, 소녀는 제이와 역할을 바꾸고 드디어 세상에 나갈 기회를 얻는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들과 처음 보는 풍경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던 소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웬 수상한 신부님 두 명이 갑자기 소녀를 공격한다. 깜짝 놀란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불길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지만, 결국 그 일로 조용히 잠자고 있던 능력이 깨어나고 소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만다. 천년 동안 무언가에 원한을 품고 칼을 갈던 미스터리한 집단을 비롯해 반란을 꿈꾸는 세력들까지 소녀를 자기 편으로 데려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나선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소녀를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다.

제이가 어딘가로 실종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위험한 세력들이 화산 ‘몰’을 이용해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된 소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가 없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동생을 찾고, 신화와 역사가 낙인 찍은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저 괴물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한다.

<저자 소개>

아디 룰(Adi Rule)은 음악을 전공하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공연하는 등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소설 창작도 병행해 왔다. 전작으로는 『Strange Sweet Song』 등이 있다.